

우리 동네 **맛**
이 가게 어때?

낙동생오리

달성군 다시읍 죽곡길 7-4(죽곡리 194-2)
문의 ☎053-583-5292

대한민국 건강 요리 '숯불구이의 명가'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느껴지는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시작됐다. 보양식으로 예전부터 많이 먹던 오리고기!!

오리고기의 기름은 몸에 이롭다고 하니 자주 먹고 싶지만, 잘 안 먹게 되는 음식 중의 하나다. 건강을 핑계 삼아 오리고기 먹으러 가보고 싶을 때 다사 죽곡리에 있는 '낙동생오리' 함께 가보자

다사 죽곡 태성그린시티(아파트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아파트 상가를 끼고 우회전하면 바로 '낙동생오리' 본점이 자리하고 있다.

건물 뒤편으로 10여 대의 전용 주차장이 있고, 건물 앞쪽과 인근 아파트 담벼락 주변으로 주차할 수 있다.

메뉴는 오리고기 전문점답게 참숯불구이, 양념주물럭, 통 훈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류(음료)와 식사(공깃밥, 볶음밥)가 준비되어 있다.

양념 고기보다는 참숯불구이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다. 구울 때 소금간 살짝 된 오리고기 본연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숯불



구이로 주문했다. 기본 찬으로 '낙동생오리'에서 꼭 추가로 갖다먹는 부추무침은 오리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혼자서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있고, 물김치와 오이 절임 역시 "하~" 맛이 좋아서 고기 나오기 전부터 하나씩 집어 먹기 시작한다.

선홍빛의 생오리를 불판에 올리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따라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 걸까?

기분 좋은 담백한 맛을 알기에, 게다가 자주 먹는 것은 아니다 보니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다. 오리고기 자체도 부드럽고 담백하게 맛있지만, 된장 베이스로 된 양념장도 맛이 좋아서 고기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느낌이다.

고기를 다 먹었다고 느껴질 때 당연히 추가 주문을 해야 하는 메뉴가 바로 공깃밥이다. 콩나물, 부추무침, 김 가루가 담긴 넓은 대접과 된장찌개가 함께 나오는데 모두 넣어서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탄성이 나온다.

지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모임을 하면서, 정을 한 잔의 술로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가게 영업시간은 11:30~21:30까지이고, 혹 고기가 남으면 포장도 가능하다.

정말봉 객원기자



'2024 달서 맛 축제' 대표 음식문화 축제 - 10월 19일(토)까지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10월 19일(토)까지 먹거리 골목 3곳에서 '2024 달서 맛 축제'를 개최한다.

달서구가 먹거리 골목의 특색을 살린 음식문화 축제 개최로 골목 외식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4 달서 맛 축

제'를 ▲9월 27일(금) 수밭골 웰빙 음식거리(도원동) ▲10월 5일(토) 모다 음식문화거리(호림동) ▲10월 19일(토) 장기 먹거리촌(장기동)에서 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맛 축제는 달서구의 대표 음식문화 축제답게 달서 우

수식품관, 선사시대 테마 메뉴, 달서의 새로운 맛 전시관을 운영한다.

10월 5일(토)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많은 모다 음식문화거리는 대명 우수지 맵공이 상상되는 연두색을 테마로 해 외국 전통 공연 및 음식

체험, 달서 우수 식품(빵, 떡) 테마관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0월 19일(토)은 장기 먹거리촌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집중 공략해 엄마아빠의 어릴적 음식놀이 체험, 가족 레크레이션 등 어른·아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음식과 게임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로 연락 주십시오.

- * 1.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푸른신문에 제보해 주신 기사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2.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사연과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 제작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gcsup@gcs.co.kr)

푸른방송 홈페이지 QR코드



푸른신문 홈페이지 QR코드

